

# 언어가 생각을, 생각이 세상을 바꿉니다!

정선재(서울시여성가족재단 기획조정본부)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유모차’라는 용어가 ‘유아차’로 개정되었다.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20.3.26. 개정)에서는 ‘저출산’이 ‘저출생’으로,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20.12.30. 개정)에서는 ‘자매결연’이 ‘상호결연’으로 바뀌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편견이나 차별 등을 불러일으키는 생활 속의 차별 언어를 시민과 함께 개선해 만든 ‘성평등 언어 사전’에서 제안한 용어들이다.

차별적 용어를 평등하게 바꾸는 현상은 해외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유럽 의회, 미국의 도시 등에서는 맨(man) 등 특정 성이 들어간 행정용어 등을 성 포괄적인 평등언어로 개정하고 있다.

‘폴리스맨’(policeman)을 ‘폴리스 오피서’(police officer)로, ‘맨홀’(manhole)을 ‘메인テナンス홀’(maintenance hole)로, চে어맨(chairman)을 চে어퍼슨(chairperson)으로, 신입생을 의미하는 ‘프레시맨’(freshman)을 ‘퍼스트 이어 스튜던트’(first-year student)로, 소방관을 뜻하는 ‘파이어맨’(fireman)을 ‘파이어 파이터’(fire fighter)로 바꾼 것이다.

이처럼 성평등 언어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변화의 배경과 현황, 향후 방향 등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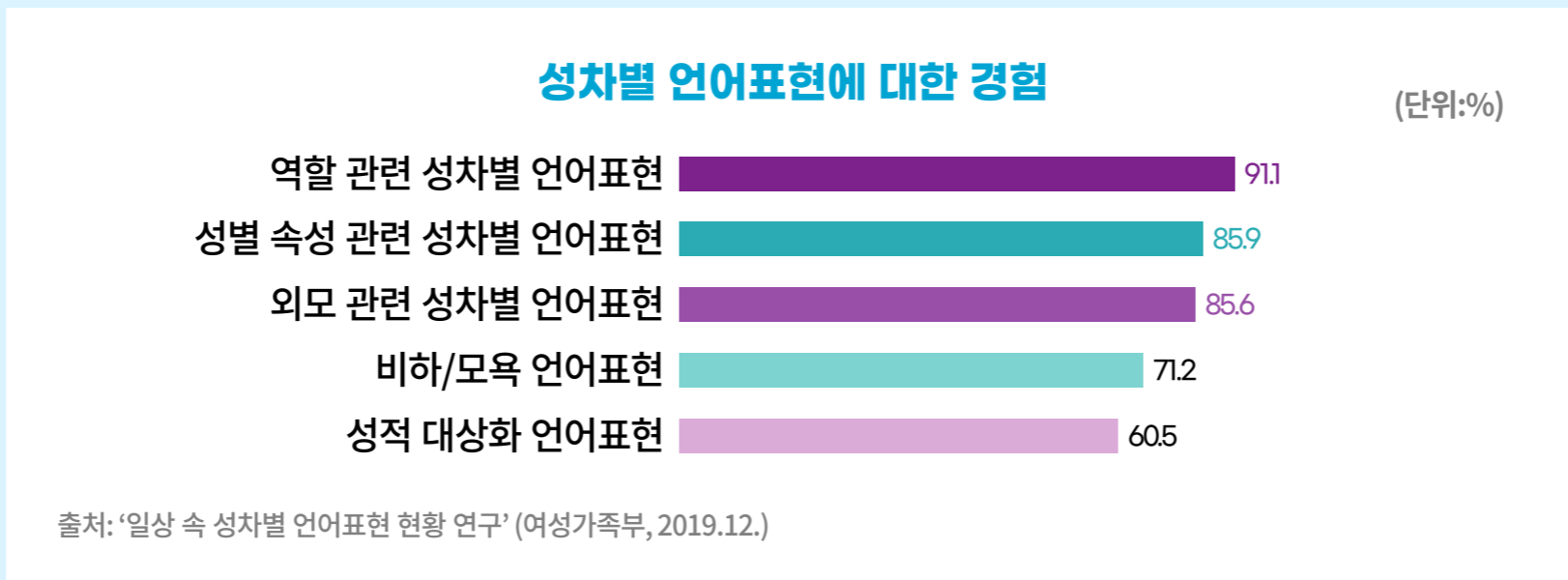
## [목 차]

- 차별적 언어표현, 90% 이상 경험 있다!
- 차별적 언어표현, 부정적 영향이 크다!
- 서울시 성평등 언어 사전, 시민과 함께 만들다!
- 서울시 조례의 차별적 용어, 개정해 바꾸다!
- 유럽, 미국의 도시, 성평등 언어 개정이 확산되고 있다!
- 차별적 언어, 평등하게 계속 바뀌어야 한다!



## 차별적 언어표현, 90% 이상 경험 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만 14세 이상 59세 미만의 남녀 총 2,058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성차별 언어표현 현황과 영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차별 언어표현을 한 번이라도 접해본 사람의 비율은 90%가 넘었다. 듣거나 본 성차별 언어표현을 유형별로 보면 ▲성역할에 근거한 것(91.1%) ▲성별 속성(traits)에 근거한 것(85.9%) ▲외모에 근거한 것(85.6%) ▲비하/모욕적인 것(71.2%) ▲성적 대상화에 근거한 것(60.5%) 등으로 나타났다. (출처: ‘일상 속 성차별 언어표현 현황 연구’, 여성가족부, 2019)



이러한 성차별 언어가 어느 성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성차별이라는 인식이 높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여성 대상일 때가 남성 대상일 때보다 성차별 언어라는 인식이 높았다.

분류	역할	외모	성별 속성	성적 대상화	비하/모욕
여성대상일 때 성차별 인식	943 (92.8)	1,073 (90.0)	810 (92.7)	672 (75.2)	887 (83.5)
	673 (78.3)	487 (84.4)	495 (89.2)	394 (67.5)	355 (82.8)

출처: ‘일상 속 성차별 언어표현 현황 연구’ (여성가족부, 2019.12.)

## 차별적 언어표현, 부정적 영향이 크다!

성차별 표현을 접한 경험이 이후 생활의식과 태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다’(60.4%), ▲‘이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더 조심하게 되었다’(61.3%), ▲‘이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50.1%), ▲‘앞으로의 삶이 우려되었다’(39.4%), ▲‘자존감이 떨어졌다’(34.4%) 등의 응답을 보여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일상 속 성차별 언어표현 현황 연구’, 여성가족부, 2019.12.)

이처럼 성차별 언어표현을 접한 경험이 90%나 될 정도로 많고, 성차별 언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과 피해가 큰 만큼, 성차별 언어를 성평등 언어로 대체해 성평등한 언어를 확산하기 위한 사회적 캠페인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주요 내용 ('18년 시즌1 / '19년 시즌2 / '20년 시즌3)

차별 언어	시민 제안 이유	평등 언어
유모차(乳母車)	어미 모(母)'자만 들어가 평등육아 개념에 반함.	유아차(乳兒車)
저출산(低出產)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	저출생(低出生)
미혼(未婚)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개선.	비혼(非婚)
몰래카메라	몰래하는 장난이 아니라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임.	불법촬영
맘스스테이션	실제 이용하는 어린이를 주체로 하는 단어로 순화.	어린이승하차장
분자(分子), 분모(分母)	분모, 분자는 엄마, 아들이 아니므로 분수식 의미에 맞게 개선.	윗수, 아랫수
수유실	모두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개선.	아기쉼터, 아기휴게실
부녀자	기혼 여부 또는 성숙함을 이르는 말로 여성을 구분하기 보다 통칭하는 것을 권장.	여성
경력단절여성	경력이 단절된 게 아니라 고용이 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표현.	고용중단여성
스포츠맨십	성별 구분 없는 말로 순화.	스포츠정신
효자상품	수익을 내는 특정 상품 등을 '효자'로 비유하기 보다는 인기가 많은 현상 그대로 표현.	인기상품
학부형	여성을 배제하는 남성 중심적 표현 개선.	학부모
자매결연	언니와 여동생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의미의 객관적인 용어로 개선.	상호결연
미숙아	조금 일찍 태어난 아기를 뜻에 맞게 개선.	조산아

## 서울시 조례 차별적 용어, 개정해 바꾸다!

서울시인권위원회는 지난 2020년 4월, 조례 등 서울시의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2019년 7월 1일 기준 860개) 결과 차별적 용어가 사용된 자치법규가 인권 침해적이라며 약 12개 용어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성차별 언어로 개정이 제안된 용어 중 저출산 > 저출생, 유모차 > 유아차, 자매결연 > 상호결연, 주부 > 여성 등은 개정이 완료 되었고 미혼 > 비혼 등은 아직 개정되지 못했다.

###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개정을 권고한 자치법규 속 차별적 용어

평가항목	현재용어 > 대안용어	조항	권고사유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 계	50	
	행상/노점상 → 거리가게	5	‘거리가게’는 ‘행상/노점상’의 순우리말로 서울시 행정 순화어임.(2013)
	미혼 → 비혼	1	미혼은 결혼을 못한 미완성의 상태라는 사회적편견을 반영한 것으로, ‘하지 않은 것’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용어변경이 필요.
	부모 → 보호자	1	부모 외의 대상(조부모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음.
	소외계층 → 취약계층 우범지역 → 취약지역	14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 및 해당지역에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
	저출산 → 저출생	11	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용어사용.
	유모차 → 유아차	4	유모차는 ‘어미 母’자만 들어가 평등육아 개념에 반하는 용어로 개선필요: ‘유아’중심으로 표현.
	자매결연 → 상호결연 (sistercity)	12	성차별적 용어이며 우월적 관계를 나타내므로 보다 객관적인 용어로 순화. *한국법제연구원(2015)에서 규정한 차별적 용어
	장애등급 → 장애정도	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선 필요. (장애인복지법)
	결손가정 → 소년소녀가정 결손가족 → 한부모가정 등	1	비정상 가족이라는 고정관념.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용어 서울시 행정순화어임.(2019)
편견·선입견에 근거하여 대상을 한정	소 계	5	
	학생 → 청소년/시민	3	학생이 아닌 학교밖 청소년 등 사회적 다양성을 포함하는 용어사용.
	주부 → 여성	1	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고용중단 여성을 ‘주부’로 특정할 우려가 있고, 실제 여성인턴십 사업으로 운영중.
	특정계층 지칭	1	편견과 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민을 특정함으로써 차별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음. *주부, 학생 등 > 고용계약이 없는 자

출처: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시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2020.4.2.)

서울시 자치법규 개정 권고목록 및 결과

권고내용	서울특별시 조례명	조항	결과
유모차 ↓ 유아차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판매 시설 등의 설치운영)	개정완료 ('20.12.30.)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행위의 제한)	개정완료 ('20.10. 5.)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공원시설 이용료 신고 등)	개정완료 ('20. 7.30.)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개정완료 ('20.10. 5.)
저출산 ↓ 저출생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3조(적용범위)	개정완료 ('20. 3.26.)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외	의원발의 ('20. 7.13.)
	다자녀 가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의원발의 ('20. 7.13.)
자매결연 ↓ 상호결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자매결연 등)	개정완료 ('20.12.30.)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개정완료 ('20.12.30.)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자매결연 의결)	개정완료 ('20.12.30.)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교류사업의 내실화)	개정완료 ('20.12.30.)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기록의 보존 및 관리)	개정완료 ('20.12.30.)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결연의 취소)	개정완료 ('20.12.30.)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도시의 날 운영)	개정완료 ('20.12.30.)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공무원의 해외도시 등 근무)	개정완료 ('20.12.30.)
	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개정완료 ('20.10. 5.)
	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예산편성·집행)	개정완료 ('20.10. 5.)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제9조(구매 협조요청)	개정완료 ('21. 1. 7.)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식품 등 기부 협조요청 등)	개정완료 ('21. 1. 7.)
주부 → 여성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제2조(정의)	개정완료 ('21. 1. 7.)
미혼 → 비혼	해외주재관 근무에 관한 규칙	제9조(가족동반)	미제출

출처: 서울시 인권위원회

## 유럽, 미국의 도시, 성평등 언어 개정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의 의회 등에서는 맨(man) 등 특정 성을 강조한 용어 대신 성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2018년 12월, 유럽연합(EU) 법률 제정 때나 통역 시, 그리고 상호소통 시 남성(man)의 뜻이 담긴 용어 대신 성(性)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자고 촉구하는 가이드북을 만들어 의원들과 관리들에게 배포했다. ▲사업가나 기업인을 뜻하는 ‘비즈니스맨’(businessman), ‘비즈니스 우먼’(businesswoman)은 ‘비즈니스 퍼슨’(business person)으로, ▲인조를 뜻하는 ‘맨 메이드’(man-made)는 ‘아트피셜’(artificial)로, ▲인력을 뜻하는 ‘맨파워’(manpower)는 ‘스태프’(staff)로 바꿔 사용하자는 것이다.

UN에서는 의장을 뜻하는 체어맨(chairman)을 체어퍼슨(chairperson)으로 바꿔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 기존 차별 언어

businessman/businesswoman  
policeman/ policewoman  
councilmen  
man-made  
manpower  
chairman  
he/she  
freshman  
fireman  
manhole

### 개정 평등 언어

business person  
police officer  
council members  
artificial  
staff  
chairperson  
they  
first-year student  
fire fighter  
maintenance hole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는 지난 2019년 7월, ▲‘맨홀’(manhole)을 ‘메인터넌스홀’(maintenance hole)로, ▲‘폴리스맨’(policeman), ‘폴리스우먼’(policewoman)은 ‘폴리스 오피서’(police officer)로, ▲개인을 그(he)나 그녀(she) 대신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명사인 ‘데이’(they)로 바꾸는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데이’(they)는 2015년 미국방언학회(ADS)가 성중립적인 단어로써 ‘그해의 단어’로 선정할 만큼 미국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버클리시에서는 교통, 건강, 안전 규정과 분리수거, 환경 정책, 건설 허가 등 시 행정 전반에 개정 조례안이 적용돼 바뀐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2019년 5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는 주민 3분의 2 지지를 얻어 시 헌장에서 ‘카운실 맨’(councilmen)을 ‘카운실 멤버스’(council members)으로 교체했고, 오리건주 멀트노머 카운티도 시 조례에서 ‘그’(HE)를 ‘그들’(THEY)로 변경했다.

미국 워싱턴주는 주(州)법 조항에서 이미 지난 2013년부터 ▲‘폴리스맨’(policeman)을 ‘폴리스 오피서’(police officers)로, ▲신입생을 의미하는 ‘프레시맨’(freshman)을 ‘퍼스트 이어 스튜던트’(first-year student)로, ▲소방관을 뜻하는 ‘파이어맨’(fireman)을 ‘파이어 파이터’(firefighter)로, 바꿔 표기했다. 기존 단어의 ‘맨’(men)이 남성을 뜻해 차별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특정 성별을 연상케 하는 단어를 행정 용어 등에서 성 포괄적이고 평등한 용어로 개정하는 움직임은 미국 전역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

## 차별적 언어, 평등하게 계속 바꿔야 한다

서울시 조례의 차별적인 용어가 개정되고, 국내외적으로 성평등한 언어 사용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법령·행정용어와 서식 등에는 차별적인 용어들이 개선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에는 차별적인 용어로 사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편부(偏父: 어머니가 죽거나 이혼하여 홀로 있는 아버지)’와 ‘편모(偏母: 아버지가 죽거나 이혼하여 홀로 있는 어머니)’가 아직도 남아있어 ‘한부모’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

(주) (국)

생활 환경					
성장과정	실부모, 양부모, 편모, 편부, 계부, 조부모, 기타[ ]				
결혼여부	미혼, 결혼(초혼, 재혼, 삼혼 이상), 이혼, 별거	종교	취미·특기		
주요경력	질병력				
현주거 형태	자택, 전세, 월세, 기타[ ]		생활 정도	상 중 하 (월 가족수입 만원)	
인수자	성명	관계	연령	세	
	인수 의사				

이처럼 관습적으로, 혹은 대체할 말이 없어서 성 차별적인 언어들을 쓰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언어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차별적 언어를 평등한 언어로 대체해 성평등한 언어를 확산하기 위한 사회적 캠페인과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일상 속 성차별 언어표현 현황’ 연구(2018.1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 언어사전’ 보도자료 (2018.6.3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2’ 보도자료 (2019.6.28.)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보도자료 (2020.9.1.)  
서울시 ‘2020년도 청년 인권의식 및 혐오표현 실태조사’ (2020.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2020.12.31.)  
국가인권위원회 ‘2019년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 (2019.4.)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리포트’ (2019.10.)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시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2020.4.2.)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2019.11.)  
유럽의회 'GENDER-NEUTRAL LANGUAGE in the European Parliament' (2018)  
뉴욕 타임즈 ‘No More Manholes in Berkeley as City Writes Gender Out of Codes’  
(2019.7.19.)  
법제처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방안 연구' (2017.1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